

# 영어와 국어의 인상 구문 비교 분석\*

홍 기 선

## 0. 서 론

본고는 영어와 국어의 소위 인상구문을 비교 분석함을 목표로 한다. 인상구문은 두 언어에서 (1)과 같이 전통적으로 하위절의 주어가 상위절의 목적어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던 주어-목적어 인상구문(Subject-to-Object Raising Construction)(Postal 1974)을 가리킨다.

- (1) a. I consider Mary to be a genius.
- b. 나는 영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구문에 대한 문법기능적 설명을 논의 없이 받아들인다. 이 글의 초점은 (1b)와 같은 우리말 구문은 영어와 달리 통사구조보다 의미와 담화기능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됨을 보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미를”의 하위절에서의 기능이 문법기능인 주어가 아니라 담화기능인 주제(topic)이며, 주제들 중에서도 뒤따르는 평언절(comment clause)이 상태성(stativity)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려 한다. 이 주장은 실제로 주어 이외에도 소위 중주격구문(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에서 첫번째로 나오는 주격명사구가 언제나 상위절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이 관찰이 옳다면 본고가 설명해야 할 문제는 중주격구문의 첫번째 명사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와 동일한 문제가 되며, 본고는 이들이 상태성으로 규정되는 절의 담화주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영어와 우리말의 인상구문은 인상된 요소가 상위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이 하위절에서 담당하는 기능 면에서 보면 매우 다르다. 이 주장은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어는

---

\* 본 연구는 1995년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여러 발전 단계에서 96년 담화인지문법학회 연구회, 97년 생성문법학회 연구회, 97년 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구두로 발표되었으며 이 모임들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주어—서술어를, 우리말은 주제—평언을 문장의 기본구조로 갖는다는 Li and Thompson (1976)의 고전적인 주장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을 갖는다. 즉, 인상구문은 각 언어의 기본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상위절의 목적어로 해석되는 구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구문은 양 언어에서 모두 하위절의 가장 현저한(prominent) 요소를 상위절의 목적어로 인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하위절에서 가장 현저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두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본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의미와 담화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1b)와 유사한 구문은 (2)라고 주장하려 한다. 그리고 (1a), (1b), (2) 세 문장들 사이의 의미와 구조간의 관계를 두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비추어 설명해 보려 한다.

- (2) a. I think of Mary as being a genius.  
b. I believe of Mary that she is a genius.

1장에서는 영어와 우리말 인상구문의 기본 사실들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우리말의 인상구문이 중주격구문과 관련 있음을 보인다. 3장에서는 이 구문은 하위절이 상태성의 자질을 지닐 때 그 절의 주체가 상위절의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이라는 담화기능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영어와 우리말에서 부분적으로 상이한 주제의 정의가 필요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새로운 분석이 설명하는 바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그런 분석에 기초하여 영어와 우리말의 관련된 문장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

## 1. 영어와 국어의 인상구문

(3)과 같은 영어의 인상구문은 늘 (4)와 의미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비교 설명되어져 왔다(조계훈 1995).<sup>1</sup>

- (3) a. I consider Mary to be guilty.  
b. I believe Mary to be a genius.  
(4) a. I consider that Mary is guilty.  
b. I believe that Mary is a genius.

그런데 (4)에서는 “Mary”가 하위절의 주어임이 분명한데 (3)에서는 의

<sup>1</sup> 영어 인상구문에 대한 설명과 예문들은 조계훈 (1995)을 그대로 따랐다. 본고의 논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의 Chomsky 이론 틀내에서의 인상구문 분석에 대해서는 조계훈 (1995)의 “LF 목적어 인상설(Chomsky 1992)”와 “S-구조 인상설(Lasnik and Saito 1992)”의 비교 참조.

미상 하위절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상위절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상위절의 목적으로 행동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Postal (1974) 이후 계속 제시되어 왔다. (5)처럼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고 (6)처럼 상위절에 속하는 명사구와 조응관계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주절동사에 의해 목적격을 받는다는 점 등이 그 증거가 된다.

- (5) a. He is believed to be honest.  
 b. \*He is believed that is honest.  
 (6) a. John<sub>i</sub> believed himself/\*him<sub>i</sub> to be a genius.  
 b. John<sub>i</sub> believed that \*himself/<sub>i</sub>he, is a genius.

최근에도 Lasnik and Saito (1991) 등에서 같은 종류의 증거들이 제시되었는 바 (7), (8)처럼 결속조건(binding condition)에 관련된 예들과 (9)처럼 부정극어의 인허(licensing of negative polarity items)와 관련된 예들이다. (7)은 인상구문의 관련 명사구가 상위절의 일반 목적어와 같이 “Bob”을 성분통어(c-command)하므로 비문법적이 됨을 보여주며 (8)도 “the defendants”가 역시 일반 목적어와 같이 조응사를 성분통어하여 문법적이 됨을 보여준다. (9)도 “none of the defendants”가 부정극어를 성분통어하는데 있어 that 절의 주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절의 직접 목적어와 같이 행동함을 나타낸다.

- (7) a. ?\*Joan believes him, even more fervently than Bob’s mother does.  
 b. Joan believes [he, is a genius] even more fervently than Bob’s mother does.  
 c. ?\*Joan believes him<sub>i</sub>, to be a genius even more fervently than Bob’s mother does.  
 (8) a. ?The DA accused the defendants during each other’s trials.  
 b. ?\*The DA pro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uilty] during each other’s trials.  
 c. ?The DA proved the defendants to be guilty during each other’s trials.  
 (9) a. The DA accused none of the defendants during any of the trials.  
 b. ?\*The DA proved [that none of the defendants were guilty] during any of the trials.  
 c. ?The DA proved none of the defendants to be guilty during any of the trials.

(Lasnik and Saito 1991: 326)

이 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방법은 이론 틀에 따라 다르다.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에서는 하위절의 주어가 상위절의 목적어로 인상되었다고 보는 초기 변형문법과 같은 분석을 유지해 왔다. Chomsky 이론에서도 전통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갖는 이동을 상정하였으나 예외적 격표지구문(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으로 “영미를”이 상위절로 이동하지 않고 하위절에서 예외적으로 대격만을 받는 구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Chomsky 1981). 최근에는 이론의 변화와 더불어 다시 이동을 상정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Lasnik and Saito 1991, Chomsky 1992). 반면 변형을 가정하지 않는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에서는 문법기능간의 관계를 포상하는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상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이 상위절의 목적어와 하위절의 주어로 동시에 기능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이 구문을 분석할 때 이동을 가정하는가 아닌가는 본고의 논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론에 따라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본고에서 “인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것은 이론중립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용법일 뿐이다.

(10)의 우리말 구문은 많은 통사론 연구에서 영어의 (3)에 대응되는 구문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10) 나는 영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어 구문과의 차이점도 지적되어 왔는데 첫째, (11a)에서 보듯이 “영미”는 주격이나 대격을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 즉, 영어와 달리 대격이 수의적이다. 둘째, (11b, c)처럼 우리말에서 하위절은 “고”라는 보문사가 이끄는 finite clause로서 시제나 양상을 나타내는 접사들이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다. 또한 (11d)처럼 서술어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하위절의 동사가 비상태동사 또는 개체층위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와 대비되는 국면층위술어(Stage-level predicate)일 때 (Carlson 1987) 인상구문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11) a. 나는 영미가/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b. 나는 영미를 천재이었다고 기억한다.

c. 나는 영미를 천재이리라고 생각한다.

d. \*나는 영미를 다켰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영미를”이 상위절의 목적어라는 점은 논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근거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되었듯이 (12a)처럼 “영미를”이 “언제나” 같은 상위절의 문장부사를 앞설 수 있다는 점, (12b)처럼 그 자리에 대명사가 올 경우 주어와 공지시 못한다는 점, 그리고 (12c)



나눌 수 있는데 관계문법 틀 내에서 쓰인 연구들과 Park (1994) 등은 전자를 주어로 분석한다. 그 근거는 존대표지인 “시”가 주어에 의해 유인된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때 (15)와 같이 첫번째 명사구가 “시”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시다.

다른 연구들(J. H. Yoon 1987, Y. Kim 1990, K. Hong 1991 등)은 두번째 명사구가 주어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서술어의 유일한 논항이기 때문이다. “시”에 대해서는 “시”가 주어에 의해서만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펴는데, Y. Kim (1990)은 “시”가 주어뿐만 아니라 주제(Topic)에 의해서도 유인된다고 주장하며, K. Hong (1991)은 “시”는 주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인되거나 주어와 환유(metonymy) 관계에 있는 명사구의 존대자질이 주어로 전이(transfer)되어 유인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주장이 옳은가는 “시”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의 설명력에 달려있다.

(14b)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첫번째 명사가 주어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많다”라는 서술어는 주제격과 장소격 두 개의 논항을 취하며 이 중 장소격이 주어가 되는 것으로 본다.<sup>2</sup> 그러나 이 두 구문과 달리 (14c, d, e, f)에서는 주로 부사구로 표현되는 장소, 시간, 기간의 표현들이 첫번째 주격 명사구가 된 경우인데 이런 표현들을 주어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14c)의 경우 (16)처럼 “시”는 분명히 두번째 명사구에 의해 유인된다.

(16) LA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신다.

(14d, e, f)는 “시”를 시험해 보기도 어렵고 주제역할 등에 의해 주어선택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에서도 시간이나 기간 등은 기본적으로 주제역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4)의 모든 예에서 첫번째 명사구를 일관되게 주어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13)에서도 하위절의 주어가 인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의 분석에 대한 명백한 반

<sup>2</sup> 이와 유사한 구문으로 (i)과 같은 심리동사구문을 들 수 있다. (ia)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주어표지로 “는”이 “가”보다 훨씬 자연스러운데 이는 “그립다” 같은 심리 동사는 “그리워하다”와 달리 그 경험자의 시점에서 발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ib)처럼 만들면 (ii)와 대조적으로 비문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

- (i) a. 철수가 (는) 영미가 그립다.
- b. \*나는 철수를 영미가 그립다고 생각한다.
- (ii) 나는 철수를 영미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한다.

례가 된다.

여기에서 두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14a)와 (14b)는 주어로 설명하고 다른 문장들은 “예외적”이라고 보는 길이다. 두번째는 (14)에서 인상되는 모든 요소를 주어가 아닌 다른 요소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번째 입장을 취하는데 3장에서 논의될 것처럼 실제로 이 명사구들이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며 그것을 설명할 단일한 언어학적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주격구문과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의 관련성은 (17)과 (18)에서도 볼 수 있다. (17)은 중주격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예문들인데 (17a)처럼 신체의 부분이 사람을 앞서거나 (17b)처럼 소유물이 소유자를 앞서는 경우들이다. 또 (17c, d, e, f)는 서술어가 (14)와는 달리 행위동사인 경우인데 서술어가 상태동사라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은 (11d)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중주격구문이 아닌 단문의 인상구문에 도 해당된다.

- (17) a. \*머리가 철수가 좋다.  
 b. \*돈이 철수가 많다.  
 c. \*LA가 내가 작년에 들렸다.  
 d. \*어제가 내가 학교에 갔다.  
 e. \*그 해가 내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  
 f. \*그 삼년 동안이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다섯마리 낳았다.

윗 문장들을 인상구문으로 만들면 그 결과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 (18) a. \*나는 머리를 [철수가 좋다]고 믿는다.  
 b. \*나는 돈을 [철수가 많다]고 생각한다.  
 c. \*나는 LA를 [내가 작년에 들렸다]고 생각한다.  
 d. \*나는 어제를 [내가 학교에 갔다]고 생각한다.  
 e. \*나는 그 해를 [내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고 기억한다.  
 f. \*나는 그 삼년 동안을 [우리집 강아지가 새끼를 다섯마리 낳았다]고 기억한다.

한편 (17)의 문장들은 (19a)처럼 첫번째 명사구에 주격 대신 “는, 야, 만, 도” 등의 특수조사가 붙으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18)의 문장들도 같은 문법성의 변화를 보인다.<sup>3</sup>

<sup>3</sup> J.-M. Yoon (1993)은 Chomsky 이론 틀 내에서 인상구문을 CP의 Spec 자리를 거치는 이동으로 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장에 근거하여 우리말에서는 비주어 성분의 인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는 CP의 Spec 자리가 A-po-

(19) a. 머리는/야/만/도 철수가 좋다.

b. 나는 머리는/야/만/도 철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 3. 담화기능적 분석: 주제의 강조

윗 장에서 보인 언어적 직관이 옳다면 인상되는 명사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술어가 상태동사인 단문의 주어이고 다른 하나는 윗 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주격 구문의 첫번째 명사구이다. 본고는 표면상으로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우나 이들이 동질적인 집합을 구성함을 보이려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본고는 두가지 특성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관련되는 명사구들이 담화기능상 “주제 (topic)”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뒤따르는 절이 상태성을 띤다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특성을 살펴보자. 본고는 주제라는 개념을 “한 문장이 어떤 것에 대한 명제를 표현할 때 그것”이라 정의한다(Lambrecht 1994: 118).<sup>4</sup> 즉, 주제는 임흥빈(1987: 21)의 정의대로 “문장의 나머지 부분 혹은 화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언급대상성(aboutness)’이라는 의미론적 특성을 가진 것”이며, Strawson (1964)의 관련성 원리(The Principle of Relevance)가 말해 주듯이 한 문장은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주제에 관해 관련성(relevance)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만 의미있는 문장이 된다(Lambrecht 1994: 119).

그러나 주로 영어를 자료로 하는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언급대상성이란 정의 외에 “구정보(old information)”란 정의가 구별 없이 함께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박철우 (1996)가 지적한 대로 주제(그의 용어로는 “화제”)를 정의할 때 논리적 주어설과 주어인 정보설이 명백하게 구별안 된 채 쓰여온 것이다. Lambrecht (1994)도 그러한데 그가 제시하는 주제의 전형적인 예는 (20a)와 같은 경우이다.

sition인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i) 나는 돈을 철수가 많다고 생각한다.

(문법성 판단은 J.-M. Yoon 1993: 502에 따름)

이 주장은 CP의 Spec 자리가 주제나 초점을 위한 자리라고 해석하면 본고의 주장과 거의 같은 주장이 될 수 있다. 단, Yoon 자신이 주석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의 예문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필자는 그 이유를 비주어성분의 인상 때문이 아니라 Yoon이 (18b)와 (19b)의 대조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하겠다.

<sup>4</sup>이인영(1996), 박철우(1996) 등은 이 개념을 “화제”라고 부른다.



(20) a. (What did the children do next?) The children went to school.

b. (Who went to school?) The children went to school.

c. (What happened?) The children went to school!

(Lambrecht 1994: 121)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a)에서 “the children”이 지시하는 개체는 이 문장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문장은 이 대화 상황에서 기존에 확립된 개체군(a previously established set of entities)으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청자의 정보량을 증가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이 진술은 특정한 아이들이 이미 현재의 관심거리로 확립되었음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20a)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의 주제는 전제된(presupposed) 정보와 유사한 뜻이 되며,<sup>5</sup> Ochs Keenan and Schieffelin (1976)이 “담화상황에서 알 수 있는 지시물(the referent contextually accessible)”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개체들을 가리키게 된다. 또 Prince (1983: 4)의 “주제화란 주제가 가리키는 지시물을 담화상황에서 이미 기억환기된(already evoked) 것으로, 혹은 이미 기억환기된 것이나 추론가능한(inferable) 것과 뚜렷한 집합관계에 있는(in a salient set relation)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언급과 맥을 같이 한다.<sup>6</sup>

이런 두 가지의 정의는 실제로 영어의 주제를 설명할 때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as for NP” 표현이 영어 주제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sup>7</sup> (22)가 보여주듯이 신정보(new information)는 “as for”의 목적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1) a. As for the children, they went to school.

b. As for John, Mary loves him.

(22) \* As for a strange guy, I saw him last night.

<sup>5</sup> 전제와 주제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는 Lambrecht (1994: 150) 참조.

<sup>6</sup> Lambrecht는 (20b)의 “the children”은 초점(focus)이고 (20c)에서는 초점절의 일부라고 분석한다. 그는 이 외에도 “(John was very busy that morning.) After the children went to school, he had to clean the house and go shopping for the party.”에서와 같이 “the children”이 전제(presupposition)의 논항으로 나오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의 논의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sup>7</sup> 영어의 도치구문이나 우리말의 뒤섞기 구문에서도 문두의 요소가 이런 담화기능적 의미를 갖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i) John, Mary loves him.

(ii) 존을 메어리가 사랑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영어의 어떤 담화에서 그 담화단락의 주제로 삼을 지시물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문장은 주제를 포함하지 않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그것이 실제로 Lambrecht 가 주장하는 바이다. Lambrecht (1994: 139)는 담화의 첫 문장은 두 가지 종류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사건 보고문(event-reporting sentence)으로서 19세기 철학자 Brentano와 Marty가 “thetic judgement”라고 불렀던 문장에 해당된다. Aristotle은 모든 판단은 어떤 독립적인 개체에 대해 그것의 속성을 서술하거나 부정하는 “categorical judgement”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 이런 판단을 나타내는 논리 구조는 “A is B” 또는 “A is not B”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Brentano와 Marty는 이런 개체에 대한 서술 이외에 판단 전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을 표현하는 “thetic judgement”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명제는 “A is” 또는 “A is not”의 형태로 표현된다. 영어의 “It is raining”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thetic 문장으로 이런 문장은 어떤 개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개체들이 포함된 사건 전체를 하나로 제시한다. 담화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는 다른 문장 종류는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으로 화자가 담화에 “John”이라는 지시물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John arrived”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때를 가리킨다. 이는 제한된 용법으로 주로 대상을 지시(deixis)하거나 존재(existence)를 나타낼 때 이용되는 구문이다.

그러나 개념 상 어떤 개체가 담화에서 언급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개체가 이미 기존담화에서 관심거리로 확립되었음을 반드시 의미할 필요는 없다. 우리말은 영어와 달리 주제의 개념이 언급대상성과 구정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정의를 모두 필요로 하지 않고 언급대상성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더 폭넓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우선 우리말에도 (21)과 유사하게 “존에 관해서 말하자면”의 뜻으로 해석되는 주제문이 있다. 이런 주제는 뒤따르는 문장에서 반드시 서술어의 논항일 필요는 없으나 서술어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라야 한다. 이런 주제는 언급대상이며 동시에 영어와 마찬가지로 구정보이어야 한다.

- (23) a. 존은 메어리가 사랑한다.  
 b. \*한 처음 보는 소년은 메어리가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널리 알려진 대로 뒤따르는 문장의 서술이 관련되는 전체적 틀을 제시해 주는 주제도 존재하는데 Chafe (1976)는 이런 “장면설정 표현(scene-setting topics)”이 중국어 유형의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4)에서 문두의 요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뒤따르는 문장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생략해도 문장이 비문법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범위내에서 그런 서술이 이루어지는지, 즉 비교준거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조기가 제일이다” 하는 문장에는 조기가 이 세상 모든 개체들 중에서 제일인지, 혹은 어류 중에서인지, 오늘 반찬 중에서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담화상황이 아니라면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없을 것이다.

- (24) a. 선진국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다.  
 b. 생선은 조기가 제일이다.  
 c. 나는 갈비탕이다.

이런 구문은 (25)처럼 부정명사구(indefinite NP)가 첫번째 명사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위의 주장들과 달리 언급대상으로서의 주제가 언제나 전제된 정보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 (25) (최근 통계를 보니)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사람들 평균수명이 제일 길더라.

Dik (1978)은 영어의 주제나 우리말의 (23)처럼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Topic”, 우리말의 (24)같은 장면설정 표현들을 “Theme”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를 제안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또 이들은 인상구문에서는 같이 행동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구분없이 주제라 부르겠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주제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들이 담화의 언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sup>8</sup>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사전보도문이나 제시문이 아니고 독립적인 주제를 가진 문장들이 담화 첫머리에 나올 수 있다. (24)의 문장들은 담화의 첫 문장으로 자연스러운데 이들은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하는 사전보도문이나 새로운 개체를 도입하기 위한 제시문이기보다는 분명히 “선진국”, “생선”, “나”의 지시물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6)처럼 첫번째 명사구 뒤에 부사구의 삽입이 자유롭고, (27)처럼 (24) 뒤에 이어나오는 문장들에서 첫번째 명사구를 대명사적 표현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첫번째 명사구와 의미적으로 대를 이루는 명사구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 (26) a.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다.  
 b. 생선은 뭐니뭐니 해도 조기가 제일이다.

<sup>8</sup> 우리말에서도 “주제”란 용어는 (23)처럼 언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정보를 전달하는 명사구에만 사용하고, 본고가 주장하는 넓은 개념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27) a. 그것은 그 나라들이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b. 또 고기는 닭고기가 제일이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는 이 장의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14)에서 살펴본 중주격문장((28)에 반복)에서 첫번째 명사구가 주제라고 주장한다(임흥빈 1974).<sup>9</sup> 이 명사구들의 지시물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언급대상이며 그 나머지 부분이 이들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명제를 표현할 때에만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문장이 된다. 그리고 긴 논의가 요구되는 주장이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없이 단문의 주어는 무표지 주제(unmarked topic)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겠다.

- (28) a. 철수가 머리가 좋다.  
 b. 철수가 돈이 많다.  
 c. LA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  
 d. 어제가 올 겨울 중 날씨가 가장 추웠다.  
 e. 그 해가 보기 드물게 쌀이 풍작이었다.  
 f. 그 삼년 동안이 전쟁이 가장 심했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본고는 이런 문장들의 구조를 (29)와 같이 분석한다.<sup>10</sup> (29)에서 중요한 점은 구조상 “철수가”가 “머리가 좋다”라는 절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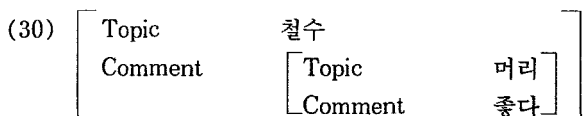
- (29) a. 철수가 머리가 좋다.  
 b. 

Topic	철수
Comment	머리가 좋다

본고에서는 첫번째 명사구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29)의 구조로 충분하나 여기에서 평언절을 더 분석하면 (30)과 같다. 즉, 중주격구문은 여러 개의 주제와 그 각각에 대한 평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주제들 중 첫번째 주제가 이 문장 전체의 주제로 해석된다. 이 구조가 나타내는 것은 “철수”가 뒤따르는 절의 외부에 있을 뿐 아니라 “머리”보다 계층상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sup>9</sup> 본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런 중주격 구문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다른 담화, 통사 구문을 제시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임동훈(1997) 참조.

<sup>10</sup> 이 분석은 용어는 다르지만 중주어 분석(Park 1981), Theme-Predication 분석(Heycock and Lee 1989) 등과 맥을 같이 한다. 본고의 주제를 주어라 부르지는 않은 이유는 본문에서 곧 상술할 것이고, Theme-Predication이라 부르지는 않은 것은 이들의 담화기능을 강조하며 동시에 이 구조에 근거한 그들의 격이론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제와 주어의 관계이다. 위에서 설명없이 가정하고 넘어갔듯이 많은 언어에서 주어는 무표지 주제로 해석되며 (Chafe 1987, Hannay 1991), 실제로 주어를 주제처럼 정의내릴 때도 있다. 그러나 Lambrecht (1994: 137-150)가 보여주듯이 주어와 주제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주제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Li and Thompson 1976). 본고는 주어는 주제와 같은 담화기능과는 다른 통사기능으로 각 문장 당 하나가 존재하며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통사론적 가정(예를 들면 어휘기능문법의 주어조건)을 받아들인다. 무엇이 주어인가, 바꿔 말해 주어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가 다음 문제가 되는데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술어의 성, 수 일치를 유도하는 요소가 주어 가 되며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술어와 관련있고 술어의 존대표지인 “시”를 유도하는 요소가 주어 가 된다(Hong 1991). 따라서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대로 (28b)는 첫번째 명사구, (28c)는 두번째 명사구가 주어 가 된다. 그러나 주제라는 담화기능 관점에서 보면 (28)의 모든 문장에서 첫번째 명사구는 주제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제 인상구문의 두번째 특성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문의 경우 서술어가 상태동사일 때만 목적어로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된 바이다. 중주격구문의 경우에도 (28)의 문장들은 인상을 허용하나 (17)((31)에 반복)의 문장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 (31) a. \*머리가 철수가 좋다.  
 b. \*돈이 철수가 많다.  
 c. \*LA가 내가 작년에 들렀다.  
 d. \*어제가 내가 학교에 갔다.  
 e. \*그 해가 내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  
 f. \*그 삼년 동안이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다섯마리 낳았다.

(28)과 (31)의 대비를 설명하기 위해 Kang (1988)과 O’Grady (1991)는 독립적으로 “관함 조건(aboutness condition)”을 제안하였는데 주격의 상위명사구(본고의 주제)에 대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지지물을 충분히 특징지어 줄 만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2a)에서 아들이 눈이 크다는 사실은 손슨씨를 특징짓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32b)처럼 개가 눈이 크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중

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2) a. 존슨씨가 아들이 눈이 크다.

b. \* 존슨씨가 개가 눈이 크다. (Kang 1988: 264)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관함 조건”이란 명칭은 적절치 않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관함”은 일반적으로 주제를 정의할 때 쓰이는 용어로 중주격구문을 포함한 훨씬 폭넓은 범위의 예를 설명하는데 이미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33)의 문장은 “존슨씨”에 관하여 언급하는 문장으로 “존슨씨”가 주제이지만 “어제 세 번 넘어졌다”는 사실은 (32b)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3) 존슨씨가 어제 세 번 넘어졌다.

그러나 본고는 이 조건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런 “특징짓기(characterizing)”, 혹은 “식별하기(identifying)” 기능은 (28)과 (31)의 대비를 잘 설명해 준다.<sup>11, 12</sup> (28a)에서 “머리가 좋다”는 사

<sup>11</sup> 같은 용어로 일어의 중주격구문을 설명한 Takami and Kamio (1996)의 연구에 대하여 박철우(1996: 47, 주 18)에 언급되어 있다. 본고를 거의 끝마친 단계에서 박철우의 논문을 접하게 되어 Takami and Kamio의 논문을 찾아 볼 여유가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박철우에 인용된 그들의 예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개념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의미자질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된다.

<sup>12</sup>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로 초점의 의미를 분석할 때 쓰이는 “배타적(exhaustive)”이란 개념(Horn 1981)과 “목록에 기재하기(listing)”란 개념(Rando and Napoli 1978)이 있다. 예를 들어 (i)의 의미를 전자처럼 해석하면 (ii a), 후자처럼 해석하면 (ii b)가 된다. 이 해석들은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 입장에서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수에 근거한 해석이다. Yeon (1994: 55) 등은 우리말의 “순이가 어머니가 예쁘다”같은 문장에서 첫번째 명사구를 초점으로 분석하면서 그 의미는 배타적이라 주장했다.

(i)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ii) a. 학교에 가는 사람은 아이들 뿐이다.

b.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본고가 주장하는 “특징짓거나 식별한다”는 의미는 (ii b)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충족시키지만 (ii a)와 같은 강한 해석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좋은 예를 들면 그 중에 아이들이 속한다는 것이 본고가 주장하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는 (ii)와 같이 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진리치가 진, 위 두 가지로 결정되는 의미론 모델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보다 어떤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그 집합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핵심적인(good core) 예들과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주변적인(peripheral) 예들이 분명한 경계없이 계속된다고 보는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 모델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이런 원형범주(proto-type categories)의 언어학적 이론에 대하여는 Taylor (1989) 참조.

실은 철수를 다른 사람과 식별하게 해 주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즉, (28a)는 “철수는 어떤 사람이나?”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반면 (31a)에서 “철수가 좋다”는 사실은 머리를 다른 사물과 식별하게 해 주는 특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머리에 대해 설명해 봐라”는 질문에 “그건 철수가 좋은 것이다”하는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 (31b)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며 (31 c, d, e, f)의 문장들이 비문법적이 되는 것도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들이 어떤 사물을 식별하게 하는 특징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장의 서술어가 같은 경우에도 이 의미차이에 따른 문법성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4a)보다 (34b)가 더 자연스럽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라는 설명이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 설명보다 LA를 골라낼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35b)는 (35a)에 비해 자연스러운데 이 역시 (35b)의 서술어 “제주도”를 식별해 내기에 더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34) a. LA가 한국 사람이 많이 산다.

b. LA가 미국 도시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

(35) a. \* 제주도가 내가 작년에 들렀다.

b. 제주도가 우리나라 관광지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들른다.

이 설명에 따르면 주제를 뒤따르는 절이 주제의 일시적인 자질을 묘사할 때보다 불변의 타고난 자질을 묘사할 때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이며, Carlson의 분류에서 국면차원 술어들보다 개체차원 술어들이 더 자연스러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또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회적인 것을 묘사할 때보다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묘사할 때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sup>13</sup> 절의 이런 의미특성에 가장 적절한 명칭은 무엇인가? 이들을 문장의 서술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어가 상태동사일 때라고 제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34), (35)에서 보았듯이 “살다, 들르다” 같은 동사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절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의미인데 본고는 이를 절의 “상태성(stativity)”이라 부르기로 한다. 우리가 “상태”를 사전적 정의대로 “한 개체의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자질, 속성으로서의 존재, 감정, 생각 등 그 개체가 처해 있는 조건”이라 이해한다면,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물론 상태동사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sup>13</sup> 이런 분류는 Dowty (1991)의 “증가성 주제(Incremental Theme)”나 Tenny (1987)의 “영향받은(affected)”이란 상적자질에 따른 동사분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작동사(action verb)의 일회적인 해석에 대한 예측이 본고와 달라 그 개념들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 외에 비상태동사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 개체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 개체의 속성으로 굳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술어가 총칭적(generic) 의미로 쓰인다던가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복수, 또는 총칭적인 의미로 쓰인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모두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8)의 문장들은 일정한 주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위의 논의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 영어처럼 문장이 “주어-술어”의 단문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에서는 술어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 술어가 그 자체로 상태동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구분이 된다. 그러나 우리말처럼 “주제-평언절”의 구조를 가진 언어에서는 술어의 의미 이외에 평언절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이미 절의 형태이므로 단순히 술어뿐 아니라 술어의 논항들, 상, 법 등 문장의 제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절 전체의 상태성이 그 절이 평언절로 쓰인 문장의 문법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고는 우리말에서 주어-목적어 인상이 가능한 명사구는 술어가 상태동사인 단문의 주어와 중주격구문의 첫번째 명사 두가지인데 이들은 그 자신은 담화기능인 주제이고 그에 대해 언급하는 술부, 즉 평언절은 상태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술어가 상태동사인 단문의 경우, 우리말에서 단문의 주어는 무표적 주제가 되며 상태동사는 절 전체를 상태적으로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된다. 영어 구문과의 유사성 이외에도 이런 전형성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단문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왜 상태동사라는 지극히 의미적인 조건이 우리말에만 첨가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말의 인상구문은 통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의미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으로 널리 인정되어 온 담화적 기능과 의미란 측면에서 이 구문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인데 그 결과 술어가 상태동사인 단문이란 사실은 훨씬 더 넓은 구문의 일부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우리말의 기본구조가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도 본고의 중요한 주장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b)((36a)에 반복)로 돌아가서 인상구문이 갖는 효과를 잠시 생각해 보자. 위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36a)에서 “영미

<sup>14</sup> 본고에서는 평언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려 하였으나 주제 명사구의 의미 측면—한정성, 총칭성 등—에서 설명해 보려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다(박철우 1996과 그 참고문헌 참조). 본고에서는 필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 특성이 주제의 전반적인 특성인지 그 중 “가” 표지된 것만의 특성인지에 대해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 그런 연구들에 대한 성급한 비교 논의를 피하였다.



를” 이 하위절의 주제임을 보였다. (36a)를 (36b)와 비교할 때 주제는 (29)에서 보인 대로 (36b)에서도 이미 평언절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담화구조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차이는 통사구조에서 상위절에 속하는가 하위절에 속하는가 하는 점인데 인상구문은 “영미를”을 담화구조 뿐 아니라 통사구조에서도 상위절에 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더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sup>15</sup>

- (36) a. 나는 영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b. 나는 [영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 점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고는 “영미를”이 상위절의 목적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주장대로 중주격구문이 인상구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있던 단순한 문장들 외에 (37)의 각 유형들도 가능하리라는 예상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적격한 문장으로 판단이 되고 (38)에 의해 (37d)에서 세 개의 “를” 표지된 명사구가 모두 상위절에 속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7d)에서 이 세 명사구가 하위절에서 주제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30)에서 이들은 각기 적용범위가 다른 주제임을 이미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상위절의 목적어라는 주장은 유지하기 어려운데 “생각한다”라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NP-를 S-라고]하는 하위범주화를 하는 동사임을 고려하면 목적어를 하나 갖는 동사라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서두에서 인상구문에서 “를” 표지되는 요소가 상위절의 목적어임은 맞지만 하위절의 주어는 아니라는 것을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하위절의 주어도 상위절의 목적어도 아닐 수도 있다. 중대격구문(multiple accusative construction) 연구에 덧붙여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남겨둔다.

<sup>15</sup> 이를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초점으로 분석하는 가능성도 쉽게 떠오르며 J. Y. Yoon (1989), 김귀화(1994) 등은 통사적인 관점에서 인상구문이 초점화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담화기능적 개념임을 고려하여 Lambrecht (1994: 207)처럼 “발화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화용적으로 복구불가능한 요소(the unpredictable or pragmatically non-recoverable element in an utterance)”이며 따라서 “발화를 단언으로 만드는 요소(what makes an utterance into an assertion)”라고 이해한다면 인상되는 명사구가 항상 초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주석 11에서 언급한 배타적 해석을 언제나 받는 것도 아니어서 본고에서는 초점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 (37) a. 나는 [그 과수원이 과일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b. 나는 그 과수원을 [과일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c. 나는 그 과수원을 과일을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d. 나는 그 과수원을 과일을 품질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38) a. 나는 그 과수원을 과일을 품질을 언제나 우수하다고 생각해 왔다.  
 b. 그 과수원이 과일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4. 예문 분석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설명하는 바를 살펴보겠다. 첫째, 중주격구문은 주체구문이고 주체구문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13) 처럼 술어와 분명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주제들 외에도 일반적인 주제들이 모두 인상 가능함을 보게 된다.

- (39) a. 언어학이 대체로 취직이 쉽다.  
 b. 나는 언어학을 대체로 취직이 쉽다고 생각해 왔다.
- (40) a. 커피가 잠이 안 온다.  
 b. 나는 커피를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 왔다.
- (41) a. 민수는 갈비탕이다.  
 b. 나는 민수를 갈비탕이라고 기억한다.

둘째, Park (1994)이 지적하듯이 단문으로 이루어진 하위절에서 술어가 동작동사라 하더라도 인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문법성 판단은 Park에 따름). (42)처럼 술어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a)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문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예이다. 그러나 (b)나 (c)처럼 수식어를 삽입하여 습관적이거나 총칭적인 해석을 유도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한 (43)처럼 진행상인가 완료상인가에 따라서도 문법성에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

- (42) a. ?\* 영미는 철수를 공원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한다.  
 b. ? 영미는 철수를 늘 공원에서 논다고 생각한다.  
 c. (?) 영미는 철수를 잘 달린다고 생각한다. (Park 1994: 359)
- (43) a. ?\* 나는 그 생선을 상한다고(상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b. 나는 그 생선을 상했다고 생각한다. (Park 1994: 360)

본고의 주장에 따르면 (42)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술어가 “상태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시각에 특정한 장소에서 노는 것은 일시적인 행위이지만, 그런 일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거나 철수가 언제나 잘 달린다

면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상태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철수를 남과 식별하여 특징지워 주는 보다 영속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상태동사와 의미적으로 유사해진다는 것이다. (43)에서도 진행상은 특정한 생선을 계속 변화하는 상태로 그리는 반면, 완료상은 이미 “상함”이란 자질이 그 생선의 특징적인 속성으로 굳어져 버렸음을 나타내게 되어 인상구문은 하위절이 상태성을 띠어야 한다는 일반화를 충족시키게 된다. (44)의 문장들이 술어 자체는 일시적인 동작을 나타내지만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은 총칭적인 해석을 받기 때문이다.

(44) a. 사람들은 그 새를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최현숙: J. Lee (1995)에서 간접인용)

b. 아이들은 해를 서쪽에서 뜬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셋째, 통사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동사들 간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J. Lee (1995)는 (45)의 세 문장이 모두 비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인상구문 이론을 따라 이는 이 동사들이 격부여자(Case-assigner)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5) a. \*나는 영미를 철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b. \*나는 영미를 철수를 안다고 생각한다.

c. \*나는 영미를 철수를 닦았다고 생각한다.

(문법성 판단은 J. Lee 1995: 270)

그러나 필자의 직관에 (45c)는 다른 문장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사랑하다, 알다”는 영어의 “love, know”보다 일시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닦다”는 영속적이고 특징적인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사랑하다, 알다”는 진행형을 허용하나 “닦다”는 허용하지 않음이 이런 의미차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45a, b)도 (46)과 같이 하위절에 적절한 수식구를 삽입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데 위의 (34), (35)에서 살펴 본 대로 이런 수식구가 “영미”를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잘 식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46) a. 나는 영미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철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b. 나는 영미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철수를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는”과 “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17)~(19)에서 보았듯이 중주격구문과 인상구문은 관련 명사구의 표지에 의해 문법성이 달라진다.

즉, (47)의 문장들은 비문법적이며 우리는 3장에서 그를 설명해 보려 하였는데 이 문장들에서 표지를 “는”을 포함한 소위 특수조사로 바꾸면 (48)처럼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47) a. \*머리가 철수가 좋다.

b. \*나는 머리를 철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48) a. 머리는/야/만/도 철수가 좋다.

b. 나는 머리는/야/만/도 철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는”과 “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본고가 주장하는 상대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보겠다. 우리는 위에서 “철수가 머리가 좋다”라는 문장이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머리가 좋다”라는 자질이 “철수”를 다른 사람들과 식별케 해 주는 중요한 특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가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47a)는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다. “머리”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머리가 좋은 모든 사람을 열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단 한 사람, “철수”에 대한 언급만으로 우리가 “머리”를 다른 것과 식별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48a)의 정확한 해석은 “(철수의 자질들 중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성격은 철수가 나쁘지만) 철수가 머리는 좋다”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담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로서의 “머리”—성격, 건강 등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여러 자질들 중 하나로서의—에 대해서는 철수가 좋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는” 표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조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대조의 “는”이 붙음으로써 “머리”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특정한 “머리”로 가리키는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런 특정한 “머리”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머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세상의 모든 다른 사물들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특질을 언급해야 하지만, 특정한 몇 개의 사물들과 대조되는 “머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들과만 구별시켜 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철수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머리를 세상의 다른 모든 사물들과 구별시켜 주는 특징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철수가 머리는 좋고 다른 면—성격, 건강 등—은 나쁘다던가 혹은 다른 면에서 철수가 좋다는 것에 대해 화자의 뚜렷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철수가 좋다”라는 진술이 머리를 다른 것들과 충분히 구별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에서 “는”이나 “가”가 붙은 명사구는 모두 하위질의 상대성이 만족되어야 하는 주제인데, 두 표지의 기본적 의미 때문에 전자의 경우 그 조건을 만족시키

기가 더 쉽다고 말할 수 있다. “야, 도, 만” 등의 특수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가능할 것 같다.

## 5. 결 론

위에서 필자는 (49a)와 같은 우리말 문장에서 “영미를”은 하위절과 주제-평언의 관계를 이루며 의미적으로는 상태성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법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영미”는 하위절의 주어에 국한되지 않고 부가어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영미를”에 해당되는 요소가 중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상위절의 목적어도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보았다. 이런 주장이 옳다면 (49a)는 영어에서 하위절의 주어가 상위절의 목적으로 인상되는 통사적 구문인 (49b)와 표면상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는 매우 다른 구문이 된다.

(49) a. 나는 영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b. I consider Mary to be a genius.

본고는 (49a)와 의미, 담화적으로 대응되는 영어 구문은 (50)과 같은 구문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들에서 “of, about”는 주제를 표시하며 하위절은 그에 대한 평언절을 이룬다.

(50) a. I think of Mary as being a genius.

b. I believe of Mary that she is a genius.

c. He said about Mary that she was a genius.

(같은 유형의 문장들은 Reinhart 1982; Lambrecht 1994에서 간접인용)

이런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기능과 의미가 유사한 (49a)와 (50) (특히 b, c)는 구조적으로 상이해 보이고 기능적으로 다른 (49a)와 (49b)는 구조적으로 유사해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영어와 우리말의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첫째, 본고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영어의 대격과 달리 우리말의 “를”은 목적어를 표시하는 대격 기능 이외에 주제나 초점과 같은담화기능을 표시할 수 있음은 많은 연구(임흥빈 1987 등)에서 주장된 바이다. (37), (38)의 문장에서도 그런 분석이 불가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49b)와 (50)처럼 목적어와 주제 표시가 대격과 전치사로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우리말 (49a)에서는 목적어이자 주제임이 한 표시로 표시 가능한 것이다. 둘째, pro 탈락에 관하여 두 언어가 다르므로 우리말에서는 “고”라는 보문자가 이끄는 finite clause 임에도 대명사 주어가 표현되지 않고 영어에서는 (50b, c)처럼 명사

구의 표현이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독립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말의 인상구문은 주제와 뒤따르는 절로 이루어진 (50)와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와 부정사구(infinitival clause)로 이루어진 (49b)와 더 유사해 보이는 것이다.

- |      |             |              |
|------|-------------|--------------|
| (51) | 한국어         | 영어           |
|      | a. “를”의 중의성 | 대격/of, about |
|      | b. pro 탈락   | pro 탈락 없음    |

본고에서 필자가 보이고자 한 것은 우리말에서 인상구문으로 분석되어져 왔던 (49a)의 문장은 우리말 문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일반적인 구문의 진부분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어의 인상구문은 문법기능과 격표지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통사적인 구문인데 반해, 우리말의 구문은 의미, 담화적인 요소가 보다 더 본질적인 특징이고 그것의 통사적인 면은 주변적(peripheral) 일 수도 있는 구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이 영어에서는 필요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귀화 (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박정섭 (1992) ‘중주어와 중목적어,’ 생성문법연구 2-2, 293-334.
- 박철우 (1996) ‘국어의 문장화제—이중 주어구문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4 집, 35-52.
- 이인영 (1996) “주제”와 “화제”—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1, 61-9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구조,’ 한국문화 19, 31-6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임흥빈 (1974) ‘주격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_\_\_\_\_ (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조계훈 (1995) LF 목적어 인상구로서의 예외적 격표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Carlson, G. 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ed. by C. Li, *Subject and Topic*, 25-56,

-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7)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ed. by R. Tomlin *Coherence and Grouping in Discourse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11)*, 21-52, Amsterdam: John Benjamin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_\_\_\_\_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Cambridge: MIT.
- Chung, D. (1993) 'Case Licensing in the Korean ECM Construction,' eds. by S. Kuno et al.,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5, 287-298.
- Dik, S. (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Hannay, M. (1991) 'Pragmatic Function Assignment and Word Order Variation in a Functional Grammar of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6: 131-155.
- Heycock, C. and Y.-S. Lee (1989) 'Subjects and Predication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Research* 25.4, 775-792.
- Hong, K.-S.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rn, L. (1981) 'Exhaustiveness and the Semantics of Clefts,' in *the Proceedings of the Northeastern Linguistic Society* 11, 125-142.
- Kang, B.-M. (1988) *Functional Inheritance,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Doctoral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Kim, Y.-J.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95) 'Raising and Transparency,' *Language* 71.1, 1-62.
- Lasnik, H. and M. Saito (1991) 'On the Subject of Infinitives,' *CLS*.
- Lee, J.-S. (1995) 'The Role of Case in Exceptional Case Mark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1, 265-318.
- Li, C. and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 of Language,' ed. by C. Li, *Subject and Topic*, 457-490, New York: Academic Press.
- Ochs Keenan, E. and B. Schieffelin (1976) 'Topic as a Discourse Notion: a Study of Topic in the Conversations of Children and Adults,' ed. by C. Li, *Subject and Topic*, 335-384, New York: Academic Press.
- O'Grady, W. (1991) *Categories and Case: the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71)*,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rk, B.-S. (1981)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Revisited,' ed. by I.-S. Yang,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 Park, M.-K. (1994) 'An Event-Structure Analysis of the Stative/Non-stative Distinction in Periphrastic Causative and *Mit*-type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ed. by Y. Kim-Renaud, *Theoretical Issues in Korean Linguistics*, 343-366.
- Postal, P. M.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IT Press.
- Prince, E. (1983) 'A Comparison of Topicalization and Left-dislocation in Dis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LSA.
- Rando, E. and D. J. Napoli (1978) 'Definites in *There*-sentences,' *Language* 54, 300-313.
- Reinhart, T. (1982)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Indiana: Bloomington.
- Strawson, P. (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 Values,' *Theoria* 30, 96-118.
- Takami, K. and A. Kamio (1996) 'Topicalization and Subjectivization in Japanese: Characterizational and Identificational Information,' *Lingua* 99, 207-235.
- Taylor, J.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MIT.
- Yeon, J.-H. (1994) *Grammatical Relation Changing Constructions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Yoon, H.-J. (1993) 'Functional Categories and ECM,'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1, 111-130.
- Yoon, J. H.-S. (1987) 'Some Queries Concerning the Syntax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eds. by S. Kuno et al.,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138-162.
- Yoon, J. Y. (1989) 'On the Multiple 'ka' and 'lul' Constructions in Korean,' eds. by S. Kuno et al.,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383-394.
- Yoon, J.-M. (1993) 'Non-Clause-Bounded A-Movement: a Cross-Linguistic Study of ECM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29.4, 495-534.

## ABSTRACT

# Subject-to-Object Raising Construction in English and Korean

Ki-Sun Hong

This paper attempts a comparison of the so-called Subject-to-Object Raising Construction in English and that in Korean. Unlike the English SOR which seems uncontroversially syntactic, I hypothesize that the apparent SOR in Korean is part of a broader process which is sensitive to both grammatical functions and discourse functions. I claim that, in Korean, the object of the higher clause is the discourse topic of the lower clause predicated by the semantically stative comment clause; the discourse topic is not restricted to grammatical subject, as evidenced by the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OR should be a process which interprets the most prominent element of the lower clause as the object of the higher one in both languages, based on the classic claim that English is a subject-prominent language whereas Korean is a topic-prominent one (Li and Thompson 1976).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과